

‘비건’에 꽂힌 제약사…미래 먹거리 키운다

삼일제약, 건강식품사업 본격 진출
100% 비건 브랜드 ‘일일하우’ 론칭
현대약품·비보존은 비건 뷰티 공략
까다로운 해외 인증으로 경쟁력 업

국내 제약사들이 미래 먹거리 분야로 비건(Vegan)에 주목해 신규 사업 진출이 활발하다. 원래 비건은 모든 동물성 재료를 배제하고 과일 및 채소만 섭취하는 채식주의의 중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지만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주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상품 구매에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마인 아웃’이 특징인 MZ세대에게 채식은 단지 건강관리 뿐 아니라 동물보호와 환경이라는 면에서 인기다.

전통적인 의학 분야 외에 차세대 먹거리 개척에 고심하는 제약사들에게 비건은 미래 주력 소비자층을 공략하면서 사업 분야도 넓힐 수 있는 매력적인 영역이다.

●해외 인증으로 제품 신뢰도 높여

한국채식연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만 명이던 국내의 적극 채식주의자는 2021년 250만 명까지 증가했다. 무려 1667%에 달하는 엄청난 증가다. 4월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MZ세대 95.6%가 환경을 위해 식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특히 이중 3명 중 1명은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간헐적 채식주의 일명 ‘플렉시테리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년층 건강 식단으로 채식을 소개하는 등 시니어 채식주의자도 늘어나는 흐름이다.

제약사들이 이런 비건시장에 주목하고 적극 진출하려는 것은 단지 성장세가 유망하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의약품의 각종 물질 개발 연구와 생산 및 유통



삼일제약 비건 전문 브랜드 일일하우의 모델 신민아. 삼일제약은 최근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까지 대형 유통채널 구축했다. 현대약품이 운영하는 기능성 뷰티 브랜드 랩클의 비건 제품들. 까다롭다는 이탈리아 비건인증(V-Lavel)을 획득했다. 비보존 헬스케어 비건 브랜드 ‘티나자나’.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비보존헬스케어·현대약품·삼일제약

에 최적화된 산업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종합감기약 액티피드정과 해열제 부루펜으로 친숙한 중견 제약사 삼일제약은 프로틴밀 전문 브랜드 ‘일일하우’를 론칭하고 비건 건강식품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일일하우는 100%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비건 프로틴(단백질) 음료 2종과 석류, 코코넛, 알로에 등의 과일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의 영양성분을 가미한 비건 스틱젤리 3종을 출시했다.

삼일제약 허승범 대표는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옳은 건강을 선사하는 진정성 있는 웰니스 브랜드로서 다가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삼일제약은 일일하우 유통채널을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

장하고 있다. 10월 4일부터 현대백화점 전국 16개 점포에 입점하고,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는 팝업스토어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랩클’ 브랜드를 통해 비건 뷰티 제품을 출시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클렌징 젤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2종을 우선 내놓았는데 두 제품 모두 동물성이나 동물유래성분이 제품에 없고 동물실험도 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까다롭다는 이탈리아 비건인증(V-Lavel)을 획득했다.

통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신약개발 기업인 비보존은 계열사 비보존케어를 통해 지난해 3월 론칭한 비건 뷰티 브랜드 ‘티나자나’의 제품 라인업을 최근 확대했다. 비보존 역시 제품들에 대해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공식인증을 받았다. 또한 미국 비영리 환경연구기관인 EWG 기준 유해성이 가장 낮은 그린 등급 성분으로 제작했다.

●비건 인구 급증에 해외직구물도 인기

여러 기업들이 비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제품군이 다양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 눈이 돌리는 곳이 해외직구이다. 최근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전문 미국 해외직구 플랫폼 아이허브(iHerb)는 이런 국내 비건인의 니즈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아이허브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비건 시장을 탄탄히 꾸려온 노하우를 활용해 비건 영양제, 비건 베이킹 및 식재료를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아이허브 측은 비건 영양제의 최근 2년 간 한국 판매율이 동기 대비 3.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아이허브는 단기간 내 눈에 띄게 증가한 판매율을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비건 제품 소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지방간 환자 80%가 비알코올성…급격한 감량은 되레 독

건강올레길 |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비만율이 크게 증가해 2020년에는 만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38.3%에 달했다. 비만 인구의 증가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에 동반하여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어 발

생하는 것으로 술 때문에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이 원인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뉜다.

지방간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줄어든 활동량 등과 관련이 높다. 간은 각종 에너지원을 대사하고, 약물이나 호르몬의 분해 및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지방간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상의 간 수치에서 이상이 확인되거나 초음파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없더라도 비만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한다.

지방간 치료를 위해서는 저지방, 고단백식이요법으로 총 칼로리를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내장지방을 줄이는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다.

체중 감량은 체중의 10%를 6개월 이내

서서히 빼는 것을 권하며, 급격한 감량은 지방간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방간이 해결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병 고지혈이 수반된 지방간이라면 원인이 되는 혈당과 혈액 내 지질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는 현재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관리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천성모병원내과

이혜민 원장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29일 (목) 음력: 9월 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찰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날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거나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를 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보다 긍정적인 사고로써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일에 집중 못하고 이것저것 다 저저 했다가 하는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화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건강

스포츠동아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15

〈고대안암병원〉

황나현 교수, 국내 첫 ‘성소수자 의료가이드’ 집필



황나현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젠더클리닉의 황나현 교수(성형외과)가 최근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 의료를 종합적으로 다룬 ‘차별 없는 병원’에 참여했다.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에서 기획하고 의사, 활동가, 연구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집필자로 나섰다. 황 교수는 강동성심병원 김결희 교수와 함께 ‘트랜스젠더의 성확정수술’을 집필했다. 황 교수는 2021년 고려대 안암병원에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젠더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 광명병원 ‘2022 환자안전주간’ 캠페인

중앙대 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은 최근 ‘2022 환자안전주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투약, 환자확인, 낙상 예방 등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짐을 열매 스티커에 적어 1층 로비 ‘환자안전나무’에 부착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리플렛을 배포하고 안전한 병원 생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근접오류 최다 보고 부서, 개선 우수부서 시상식도 진행하고 격려 선물을 전달했다.

명지병원, 암환자 정밀의료 오가노이드뱅크 설립

명지병원은 암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위한 오가노이드(organoid) 뱅크를 설립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넥스트엔바이오와 오가노이드 뱅크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오가노이드 뱅크는 환자 신체조직을 이용해 제작한 조직 모사체 오가노이드를 수집해 보관하는 곳이다. 이곳에 축적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의료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는 맞춤형 치료제 스크리닝이나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등에 활용된다. 명지병원은 뱅크를 간, 위, 대장, 췌장에서 발생하는 암 조직 중심으로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 15년째 청소년 장학사업

광동제약이 출연한 가산문화재단은 ‘제16회 가산 청소년 장학사업’을 진행했다. 가산문화재단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중고등학생 81명에게 총 1억4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가산 청소년 장학사업은 2008년 시작해 지금까지 총 10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가산문화재단은 2007년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 최수부 회장과 광동제약이 공동출연해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29일(목)

서울	10/0	인천	10/0	춘천	20/0
	16 27		17 24		14 27
강릉	20/0	대전	0/0	전주	0/0
	17 27		14 27		15 27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6 28		15 28		18 27
창원	0/0	제주	3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7 27		21 26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1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